

교회 목표

신랑께 예배
전국연합 가정
면목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3:23)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 김광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지난 주요예배 메시지

두 사이에서(왕상 18:20-21)

엘리아

엘리아와 그의 이름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한신설적으로는 변명을 누리고 있던 아합 왕의 시대에 실존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던 우상 숭배자들과 한 평생을 싸우다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밀라 기 신전을 통해서 다시 오리고고 예언되고, 사사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 논의한 본문은 그는 오늘날의 신자나 열심인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를 주시고 있다고 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기도에도 따라, 정말로 삼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왕상 17:1).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 아합과 엘리야는 오리고고와 아합 왕에 이르러서 연도와 경제 무역 등에 변성을 누리고 있었다. 백성들과 그의 집은 농요이며, 아둘러서 그들의 자신들에게 변명과 배역을 가져다주는 '변명'이라는 우상에 폭 배타되었다. 그런데 산슬론은 뜻한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에 고통이 왔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면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어떤 시제를 먹고사는 까마귀가 날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살다나. 아합왕이 시나리에서 남편없이 홀로사는 여인에게 의탁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는 진실로 현실적 감각이 전혀 없는 답답한 사람이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자

비가 많은 삼 년 후에 아둘러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켰다고 말씀하셨다(왕상 18:1). 그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끝없이 찾았고(10절), 마침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네"(17절).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이었다. 그는 세상의 변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바임을 새겨넣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그의 작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임과 아세라 신자들 850명을 갈릴살로 모아 줄 것을 요구했다(18절~19절). 이스라엘에 바임이 필요했던 아합은 엘리야의 요청대로 이월하라고20절, 엘리야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이새 때까지 사 시에서 바마하였나니?"라고 도전하며, 하나님과 바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21절). 그러나 백성들은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이 너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로 현실의 감각이 전혀 없는 답답한 사람이었다(22절).

창립신 엘리야와 하나님

마침내 엘리야와 바임의 신자들 사이에 영적 대결이 벌어졌다. 바임의 신자들은 하루종일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26절~28절).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불로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으며, 불아는 지도 없지 않았다(29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죽은 우상이 어떻게 응답한다는 말인가? 엘리야가 기도했다(30절~37절).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창립신 하나님(38)을 드러내셨다.

머뭇거리지 말고

중증 어떤 이들은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곤 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합당한 생각이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원 둘 가지기를 모두 좇는 것에 대해 결코 참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한 일들을 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그를 미워하며 자를 사랑한 자나 혹은 그를 미워하며 자를 미워하고 나하와 하나님께 경배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스도와 벨리암이 한의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고후 6:15). 그리스도와 자식이 둘다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세상이 둘다 중요하며, 둘은 세상이 중요한 자식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들에게 참된 바임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성한 복을 얻는다는(13). 그러므로 불교도 여인과 고대에게 행했던 유체의 육신을 다져서 사마리아 마을의 유체라는 것보다 살기까지 하는 것(14)을 볼지라도 23과 다 이상 못거러지 마라. 지혜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리라(57-58).

신앙
발심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현재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이제 암바사와 및 우리 함께 군사 된 디모데와 네 집에는 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온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골 3:12).

마지막 할렘집 목회자 이혜 단원이라는 찬가(2342). "나의 사랑하는 책 바울 해어졌으나 대박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자되게 된 말 말이 책 가운데 있으니 이 성령 심히 사랑함이다". 이 찬송은 그들과의 대박님으로 부추는 놀라운 부도들을 위하여 간헐하게 영적 성장을 요하는 찬송인 것 같습다. 그렇습다. 가에서 부르는 찬송들에게 성령이 나타나 하는 소원입니다. 특히 찬송이 부르는 교회의 사역을 위함은 이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에게 성경말씀과 함께 '충현교회의 5대 목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담을 기쁘게 볼 때, 가정생활은 교회생활의 연장이며, 가정에서부터의 구체적인 기도와 헌신은 우리 몸의 회교를 더욱 더 근간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충현교회는 오래 전부터 5대 목표를 위하여 달음질하고, 실제로 충현의 기쁨을 이 5대 목표로 합당하고 충현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가 양적으로 갹진되고 교역자들이 많이 충현되었으며, 천국악보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세 개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헌금으로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을 없애고 세 계교회에서 25%의 예산을 마련하여 천 명의 단식교회를 지원하고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통일화를 위해서 농어촌으로 교회를 파송하고 모든 지역에 다양한 소모로 전도하고 있으며, 이웃 사랑의 목표를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재하는 귀국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현교회와 자녀들의 행위를 보아보고 복음으로 돌리자고 회교의 본질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교회의 헌금을 전적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감히 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가정에서는 회교가 나가지고 하는 행방으로 함께 달음질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광 받으신다는 작은 교회기도 하에 주시길 바랍니다. 신령 기 6839에서 신령에 이르게 된 것들,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사 주위신 교회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주신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건대, 우리의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된다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복(성도, 감사위원)
"다들주 필자는 건국위원장 임무전 정로 집니다."

달고 오모한 그 말씀(4월 5일 금요일)

약속과 율법의 관계

언약계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 신명기

우리는 구약에서도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세오경'을 통해 하서 충분히 증명된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는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새 번의 설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율법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맺은 계약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단과 이스라엘의 어떤 요청이나 필요, 또는 의지와 공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목적과 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열 가지 계명을 주셨다. 이 열 가지의 계명은 율법적 삶을 위한 법적 조정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들을 말씀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용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외'는 제사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한 보편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언약을 파기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여겼으며,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신 32:1).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복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을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게 된 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왜곡된 이해일 뿐이다. 율법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건대, 율법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모두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원하지 않았으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다 엘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본래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가문대로는 아직도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을 지킬수록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절대로 아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과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골 2:14). 오렐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여러 번 말하지 마라.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율법은 그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큰 선물이다(신 41:58).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어렵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신 30:11-14). 선물이여 짐이 되며 고통이 되었는가? 실제로 믿음이 있던 자들에게 있어 서 율법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과 고백이었다(시 40:8, 시 122).

이 은총에 대한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다. 즉, 율법을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바가 벗어지고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다. 내리 부인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하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율법을 의무로 행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으려는 이리욕을 품게 되겠다는 사실을 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총을 향해 믿음으로 다가가면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렐레 죄악됨을 절감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Forsaken Savior

(John 1:11-12)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esus came to this world, to the world He made, to His own people, but nobody welcomed Him. He was the forsaken Savior. We are talking about the Messiah.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we find prophecies concerning the Messiah, especially in the book of Isaiah. Isaiah purposefully mentioned that the Messiah would be defiled, rejected, wounded, bruised, oppressed, afflicted, stricken, and smitten (see Isa. 53:3-9). Indeed, all these things were going to happen because it was God's way. His pleasure,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putting Him to grief; if He would render Himself as a guilt offering (Isa. 53:10). Jesus Christ wanted to do God's will.

In following God's will, Christ was forsaken by His own people. Yes, His own people abandoned and neglected Him. From the very moment He came into this world, there was no room for Him. The inn was filled. There was no bed for Him. He slept in a manger. All His life was like that. He said,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Mt. 8:20). His earthly life was wearisome. Remember when He was tired and hungry as He approached Jacob's well? He asked the Samaritan woman for a drink (see Jn. 4). Nobody gave him a drink. Everyone left Him,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Mt. 20:18). Do you see? Everyone, including the top religious officials, forsook Him. His own people condemned Him. He loved them. He preached to them the Gospel of heaven. He healed and delivered them from all kinds of incurable sicknesses, but still His own people rejected Him. Even though they said they were waiting for the Messiah, looking for the Savior, they discarded Him.

Walking in God's way, Christ was forsaken by His closest friends.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eren't slaves anymore. He called them His friends, "No longer do I call you slaves, for the slave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 have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Jn. 15:15). He gave them all the secrets from the Heavenly Father. He gave it to them so they could have life, happiness, and many blessings. But these friends forsook Him. They turned and ran away from Him, "But all this has taken place to fulfill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Then all the disciples left Him and fled" (Mt. 26:56). Pontius Pilate played the politically correct game and no one defended Him. He was forsaken by all. Peter, His closest friend, denied knowing Him three times. Peter, James, and John were even given the opportunity to see Him transfigured, but they still forsook Him. Jesus loved His disciples and

gave them all the power to preach and evangelize the Gospel, yet each one fled.

In doing God's will, Christ was forsaken in His dark hour of death. He died in the midst of angry, mocking enemies. Even his own mother stood a great distance away while He died. No one came to His rescue. Even God forsook Him so that He could take death away once and for all men. While He hung on the cross, dying for the sins of the world, He cried out, "Eloi, Eloi, Lama Sabachthani?" Which is translated,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k. 15:34). At His funeral service there were no disciples, no friends, no one to preach a solemn sermon. There was no one to seriously pray for this holy man who had not one spot of sin. No one was present to bless the undefiled Lamb of the eternal God. No one, no relatives, friends, or neighbors assisted Him. By Himself, alone, He died.

Thank God He did it all for me and for you. Even though He was forsaken, He did not forsake the Word, but He prayed and He welcomes all who come unto Him. He calls ou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28-30). Amen. At the worst place, Calvary Mountain, nailed to a cross, He opened His arms even to those who nailed him, saying,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He never forsook the sinful world. Instead, He loved them,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My dear friends, can you see and understand the paradox of today's Bible passage? Do you understand the contradictory terms? A sinner can come to Jesus and confess his sin and become a child of God. A sinner can say, "Jesus I'm sorry", and be forgiven and made His own, His best friend. All sinners who come to Jesus are given eternal life. Listen my dear friends, instead of forsaking Jesus Christ, I'm asking you, I'm begging you, forsake yourself. Forsake yourself, then you will find for yourself eternal life. As God's children, the Israelites forsook the Messiah. Instead of denying themselves and finding Jesus Christ, they did their own thing. That's why they couldn't find the Messiah. Even though He came and touched them and loved them, they looked for their own things. Their selfishness led them away from the cross. Do you want to follow Jesus Christ? Then,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Don't ever, never forsake Jesus. Forsake yourself every minute. That's the key to getting the amazing blessing. Amen. ■

버림당하신 구주

(요 1:11~12)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김성관 목사

고난 당하실 메시아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구주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 중 특별히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더욱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책에 맞고, 상하며,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징벌을 받고, 그리고 매맞을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언급하였습니다(사 53:3~9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버렸고 무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거하시릴 땅은 없었습니다. 여관은 만원이었고, 주님을 위한 침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는 그와 같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 8:20).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생애는 피곤함에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지치고 허기져 야곱의 우물에 다가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요 4장 참고). 사실 그분에게 마실 물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김없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마 20:18).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경멸했으나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그들을 고치셨으며, 모든 종류의 불치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백성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며 구세주를 찾았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분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에게마저 버린 바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생명과 행복과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들을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돌아서서 멀리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니”(마 26:56). 정치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본디요 빌라도의 연기 앞에서 그분을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친밀한 친구였던 베드로도 그분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변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나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도망쳤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으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동안 아등불처럼 멀러오는 죽음의 시간 속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생이 나서 조롱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에 그의 어머니마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 왔던 자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마저 그를 외면하셨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입니다(마 15:34). 그의 장례식에는 제자들도, 친구도, 익숙한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이 거룩한 분을 위하여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축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친척, 어떤 친구, 그리고 어떤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리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심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고, 기도하셨으며,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야벳, 갈보리 산, 그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위탁은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회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주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외면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 어긋나는 모순된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께 나아올 수 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용서받게 되고, 주께서는 그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으십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버렸습니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셨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2002 중선교회 단기선교 나라소개①

우크라이나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이 필요할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와 카톨릭을 종교로 갖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80%에 이른다. 천 년 전에 러시아 정교가 뿌리를 내린 지금도 곳곳에 수도원과 교회가 문화 유적으로 남아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우크라이나인 중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이나 세례식, 결혼식 외에는 교회에 가지도,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성경은 거룩한 책이기에 성직자 외에는 결코 열어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들의 신앙은 천 년 넘는 세월 동안 고목이 되어 생명이 없어진 지 오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사역의 종류

첫째,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명목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이다. 모든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종교 집단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iev)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비용도 싸다. 특히 지하철 노선표만 있으면 혼자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심의 중심가 및 대학교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식사료(15세 이상 국민 중 읽고 쓸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이 98%에 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어(語)로 된 전도지와 짧은 회화(우크라이나 어)를 준비하여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긴 겨울 내내 국립 극장에서 오페라와 발레 등 여러 음악회가 끊이지 않고 열린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발레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를 보고 즐기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되어 있다. 비록 가난하여 힘들고 어려운 지라도 극장에 오는 날이면 곧게 단장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예술성을 감안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찬양과 연주로 이들과 접촉하여 이들을 초청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지방에서 사역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근로자들 중 다수가 이코프르(Lviv)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iev, 우크라이나 서쪽)에서 기차로 9시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한 르보프(Lviv)에서의 사역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길이 좋지 않아 기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해 조금은 익숙한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교제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실할 것은 구(舊) 소련권 국가에서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르보프(Lviv)에서만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제1원칙이다. 러시아에 대한 반감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없고 동양인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교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짧은 실력이지만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만남을 통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럽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방문하는 단기선교팀은 되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나라 여성들은 치마를 입



는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일단 친해지면, 그들을 속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통레대로라면 그들 또한 담레로 우리를 그들의 가정으로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 꽃이나 초콜릿, 포도주 중 한 가지를 사가는 것이 예의임도 명심하기 바란다.

일반 정보

대륙성 기후로 우리 나라의 사계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물가는 \$1당 5.3호리브나로 우리나라 물가의 2/3정도이며, 농산물은 매우 싼 편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생수를 사용해야 한다. 대중 교통비는 버스, 지하철, 전철 모두 거리에 상관없이 0.5 호리브나로 약 120원 정도이다. 영업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타기 전에 갈 곳(street name)을 말하고 가격을 흥정하면 된다. 그리고 기차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식생활은 빵과 고기가 주식이며 빵간 순두부 든 스프인 보르쉬를 즐겨 먹고 음식은 대체로 기름지다. 시장에 가면 쌀을 비롯한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싼 값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들이 즐겨 먹는 맥넨나는 우리나라 만두와 모양은 같지만 대체로 양고기와 기름기가 많아 예상과는 다른 맛이 난다.

우크라이나는 시장주의 체제로 전환이 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 문화가 남아있어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다. 또한 첨대 문화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박이 쉽지 않아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해야 한다. 임대된 아파트에는 보통 침대, 냉장고를 비롯한 취사 도구, TV, 전화기 등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침대 2개에 5인용 정도의 취사도구만을 갖춰 놓고 있어서, 그 이상의 인원이나 목을 경우 침구를 대신한 침낭과 이불을 그릇들을 준비해야 한다. 시내 전화비는 거의 공짜와 다름없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허락 없이 국제 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해도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전화국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차 중선교회훈련(CMTC)

세계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1차 중선교회훈련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금번 선교위원회에서는 아직 훈련에 참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제2차 중선교회훈련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였습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집중훈련 기간

▷ 주일반: 4월 7일-6월 16일, 18:20-20:20(90분 강좌 및 1박 수련회)

▷ 토요반: 4월 13일-6월 22일, 17:00-19:20(90분 강좌 및 1박 수련회)

(2) 언어훈련: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카자어, 몽골어, 그리스랑카어, 벵갈어, 힌디어

훈련장소: 갈릴리움

훈련비: 10,000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 있는 고민

구 자은 (대학부 전사)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직분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는 별로 큰 고민 없이 그저 감사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은 얼마 전 있었던 금요 찬양집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회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말씀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고민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게 해 달라고 목사님이 울기까지 하셨던 걸까요?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제가 했던 회개는 회개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얕은 수준의 기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에 무슨 수준이 있었습니까만은 저는 너무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 보고 기도해 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지고 깨끗해진 세 심령으로 찬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라, 생명이 있는 이 고민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의미

강 신영 (대학부 3)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픈 마음으로 이사가 53장을 읽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었지만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을 예언되어 있다. 2절과 3절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맞는 상상 속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5절과 6절에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친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죄를 그냥 모른 척 해 주시지 않느냐고 묻는 친구 앞에서 나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지 못했었다. 그 때에는 하나님에 100%의 사랑과 100%의 공의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화를 제거하셔야 했던 것이다.

부활주일 성경공부 시간에 ‘왜 부활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부활이 그토록 의미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롬 3:23)이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사망대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속사역의 뒷면이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에 이번 고난주간은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상희 (대학부2)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나의 믿음은 너무 어렵고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었다. 그래서 2002년이 되면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기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고 계신다.

처음엔 뭔가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랐지만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했고 또한 놀라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늘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난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 환경은 그다지 변화되진 않았다. 지금 당장은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는 변화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 수 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늘 변함없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늘...아름다운...주...의...이...름

3.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힘을 발견하고 응용한 이야기이다. 인간은 누구나 힘을 원하며 힘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의 저자 ‘위어스비’는 오늘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힘은 영적인 힘이며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고 물위를 걸으셨다. 바다에게 명령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전능’이라는 이름에 부족하지 않다. 그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가장 합당한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일이다. 그렇다. 그는 의식할 여지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위어스비는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힘은 ‘약함’이라고 주장한다.

성령의 많은 곳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능력은 약한 데서 온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한다고 했으며,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건지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을 능력으로 표현했다.

마음은 이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 즉 약한 것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건지는 힘으로 일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좇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힘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만큼 좇으며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의 진정한 힘,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본받아 살아가자.

[한국 교회사] - 교회의 형성과 발전(1)

교회, 한국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선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수용되는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구성원·조직·건물을 다 의미하는 보다 넓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본래 교회란 말은 조직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했다. 그래서 교회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교회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마 16:18).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즉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하나님 교회를 보편교회(Universal church)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역별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이다. 지역교회는 지역별로 예배와 교육, 중지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지역단위의 교회로, 예루살렘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퍼져 나갔고, 다시 유럽으로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확장되어 갔다. 19세기 이후에는 아시아로,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한국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사란 한국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설립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 언제, 누구를 통해, 무엇을 향해 오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서 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일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간섭하셨다. 우리는 교회사를 살펴봄으로써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교회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기 위하여 전지하게 고민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요실

8교구 김경의 집사(45세) 담양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오는 16일에 2차 항암 주사 시술을 위해 입원할 예정입니다. 치료 과정을 잘 견디고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1교구 박인애 원로장로(남78세) 무릎 관절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심영순 집사(45세) 무릎 관절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계형(남 중학생) 손가락이 마비되어 뇌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수술 과정을 잘 견디고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변장국 집사(남76세) 간암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입원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윤 호근' 성도를 소개합니다

서울 출생이며 직업은 자가용 운전기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충현교회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충현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보았을 때 외국 교회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에 인상은 받았습니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노총각인데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홍철 (새가족부 통신원)

구역망

새로운 날

안양 1, 2구역
구역장 임은미, 이정택집사



교회에서 먼 구역일수록 인원이 적고 한 구역의 범위가 넓어 모이기가 힘들다. 안양 1구역도 교회로부터 거리가 멀고 구역원거리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고 즐거워했다. 한 구역원은 서울에 살다가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구역에배로 인해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했다.

구역원들이 주로 나눈 이야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였다. 집에 돌아올 때의 아픔은 분명 성공한 자였다.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으며 자녀도 재산도 많았다. 그러나 아픔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창 32:7)라고 했다. 그 이유는 '에서'와의 만남을 자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역원들은 자신에게서 아픔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 한 구역원은 경건하고 싶어 경건의 자세를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의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건해져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적이며 경건치 못하다고 고백했다. 그렇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픔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께 의의하지 않고 혼자 악착같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최원의 모습이다.

그러나 아픔은 끝까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결국 기도로 하나님께 의의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 구역원들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구역원은 처음 아이가 아플 때는 치료 중에도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하나님께 모두 맡기니 조급한 마음 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길 원하신다. 우리도 아픔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처럼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안양 구역원들의 간증처럼 조급함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권오갑집사)

다음주일 찬송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사무엘 오말리 클러프(Samuel O' Malley Clough, 1837?1910) 목사가 1860년에 쓴 찬송가이다. 19세기에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그의 찬송 인도자이며 독창자인 생기선생이 1873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 에든버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들의 천한 친구요 '내 평생을 가는 길'(470)의 작사자인 스베틀리 교수의 사랑하는 딸들이 대서양 해상에서 배 충돌 사고로 모두 익사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전도팀이 주 후 아일랜드로 갔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런데 이곳에서 클러프 목사가 이 찬송사를 발견했는데 이 찬송사를 읽는 동안 슬픔은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이 찬송사에 곡을 붙였다. 그리고 부흥 집회 때마다 열심히 불렀던 것이다.

- 1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시니 그 참되신 사람을 배후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 후렴 주 날 위해 배내 주 날 위해 배내 주 날 위해 배내, 늘 믿으시라.
- 2절 주께서 불쌍한 은사를 내리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복되한 복 받겠네.
- 3절 무거운 짐지고 애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과와 안위가 늘 있겠네.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것이며, 매절의 가사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찬송하여야 한다.

(찬양위원회)



중등1부 회장이 되면서

이 상 우 (중등1부 22번)

처음 면려회 회장이 되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걱정이 앞섰다. “내가 면려회 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회장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6학년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단순히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 간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가끔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컴퓨터 게임이나 공부, 학교 생활 등이 관심사였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등1부에 온 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원하는 생활만 고집했을 뿐, 너무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운과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는 컴퓨터 게임과 TV 보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 나에게 성경은 장식품이었다.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아직 익숙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등1부를 위해서 있는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쁘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거미줄 위의 “나”

김 성 경 (전도사, 중등2부 36호)

마이크로 조던을 매우 좋아하던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조던이 신진 농구화와 그의 유니폼을 사려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 농구화는 신드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방 한 구석에 전시해 놓기 위한 것이었고, 유니폼 역시 벽에 걸어 놓을 뿐이었다. 또 그는 마이크를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모아 두고 그의 모든 기록을 줄줄 외우고 있었다. 그의 생활 중 상당 부분이 마이크 조던의 근황을 관찰하는 데 소비되었다. 그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이크 조던이라는 대상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개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제외한 외부의 어떤 다른 개체와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무개의 자나” 혹은 “아무개의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를 규명할 수 있는 관계성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비인격적 물체일 수도 있다. 마치 앞서 말했던 조던이 그런 예이다. 물론 조던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 젊은 친구와 관련이 있는 조던은 그와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개념으로서의 “조던” 일 뿐이며 그 조던은 젊은이가 산 신발이나 유니폼을 통해 구체화 될 뿐이다. 어떤 이들은 돈이나 자신이 하는 전문직이나 어떤 기능을 관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성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관계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 관계성의 통로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 규명은 단순히 취사선택의 문제라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인간 존재를 시작하고 이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바르게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대상이나 인간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한 정체성은 왜곡된 것이며 불완전한 뿐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인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여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 마이크 조던과 같은 유명인들을 향한 열정과, 그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맺고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들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나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만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 열망의 대상과의 관계성 위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지는 않은가? 한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십대’라는 시간을 지나는데 우리 아이들, 그들과 관계를 구상할 수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상들에 의해 아이들이 둘러 싸여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빈약한 거미줄을 존재와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진 예수의 십자가 다리를 통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리고 구속된 백성이라는 가장 정확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아이들을 돕는 책임은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김 용 덕 (중등3부)



나는 6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2 때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중2 여름수련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다. 그 뒤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정말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 나 하나님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한 없이 작은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중등3부 면려회장이라는 중책을 나에게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곧 그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때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립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주시며 저를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작은 존재에게까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학교에서

결 단

“하나님! 아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하하여 내가 네 형 에서의 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내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창 35:1) “우리가 믿음에서 행한 자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들이 고난과 죄에 빠졌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도망치는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창 31:3). 그러나 아람의 일행은 세겜 땅에서 주저앉아 머뭇거리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창 34).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람은 주에게 의지하는 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벳엘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에서는 피하여 도망할 때, 벳엘에 하나님의 잔잔함을 간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람에게 다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창 28:20-22)?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창 35:3). 아람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고향을 떠나서도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유부단, 머뭇거림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같은 길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마음, 간절 수 있는 감사, 악할 수 없는 헌신 아람에게 사랑한 신령과 진정의 모습이 그 예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신령과 자기 위에 있는 고향을 아람에게 주자니 아람이 이것들을 세겜 근방 수삼라냐에 팔아 놓고(창 35:4) 우리가 아브라함이 못하고 있나니, 온전하게 자신을 열매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수삼라냐에 팔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역하는 이방의 신상과 귀국귀토를 슬쩍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은요? 마음을 다지고 필요요! 다시 그것을 주머니에 꺼내 내다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수삼라냐 밑에 붙어 할 것은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압박과 나무에서 개량한 아람의 이름(창 32:28)을 벳엘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창 35:1) 그러나 아람은 여전히 아람이었습다. 그는 여전히 아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인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아람이고, 더하고, 추한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이름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다. 그러나 나의 더러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복되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새 이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귀해진 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신다고 자기 지난 연약성은 존재하고 있었습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이름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현할 기)

